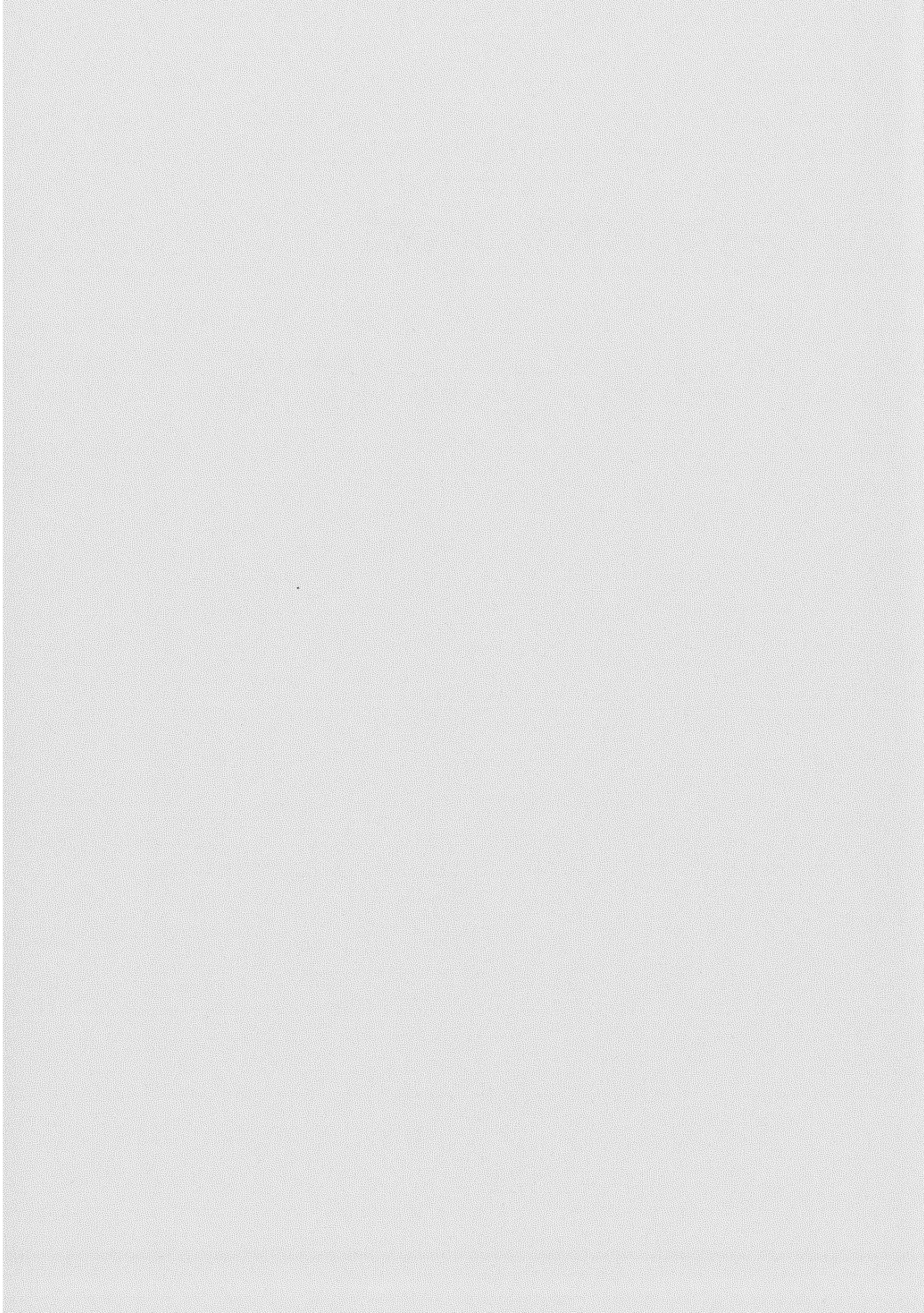


第11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2000·5·통권 제69호

I. 개회식 .....	3
II.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
III.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
IV.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25
V. 부 록	
1. 의사일정 .....	59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5월 17일(수요일) 10시 00분

開會式順(第11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유근영)

(10시 00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유근영

(10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최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 本 會 議 會 議 錄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5월 17일(수요일) 10시 02분

### 議事日程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附議된 案件

1.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충원위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 ● 의장 조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요즘 그야말로 교육이 붕괴 내지는 우리 교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자칫 일선 우리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저하에 어떤 영향이 갈까 대단히 우려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극소수의 어떠한 사소한 일 때문에 전체 우리 훌륭하게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교육동지 여러분

에게 누가 되는 이러한 것을 염려해서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질의를 하도록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1. 경과보고

#### ● 의사과장 박영하

의사과장 박영하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5월 1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 전원



[제113회-제1차 본회의]

의 발의로 집회가 요구되어 같은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2000-5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바 있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어 5월 4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역시 제172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 총액 변동 없이 세출예산중 4억 8,050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증액 조정된 세입·세출 총 8,115억 4,114만 6,000원이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제112회 임시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채택된 5학년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안 철회건의안을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타 시·도 교육위원회 등으로 발송하였으며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로부터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겠다는 전화와 회신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전체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2.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8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되, 위원 발의된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출석 요구를 한 후에 행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모두 같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사일정안 : 별첨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9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

발의에 서명한 전체 교육위원을 대표해서 이충원 위원님께서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 올립니다.

(이충원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충원 위원

이충원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체 우리 교육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 하기 위한 것이며, 출석요구 일시는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18일 오전 11시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모레 5월 19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충청북도교육감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각 국장, 과장급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번에 충청북도 청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관련 현안문제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여 그 답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충원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이충원 위원님께서서는 위원님을 대표해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나 또 좋은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와 함께 즉시 집행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금회 회기 서명위원은 김광수, 손만재 두분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질문 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제113회-제1차 본회의]

---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종원.

○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本 會 議 會 議 錄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5월 18일(목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附議된 案件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02분 개의)

#### ● 의장 조일환

좌석이 모두 정돈되고 위원님께서 출석을 마쳐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신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서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본 교육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교육감님과 기획관리과장이 오늘 괴산교육청에서 있는 교육감과의 대화의 행사 관계로 제2차 본회의에, 또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 그리고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 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의 준비를 위해서 내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질문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오늘 행정질의를 하는 것은 결코 모든 충북 교육의 행정 내지 집행이 집행청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의식 또는 시

행상의 착오가 있었다면 저희 위원들도 미리미리 챙겨보고 같이 우리 충북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행정질의가 마치 집행청을 어렵게나 아니면 책임추궁으로만 끝나는 그런 비건설적인 이러한 행정질의가 아니라 앞으로 현재의 우리 충북교육의 현 주소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미래 충북교육의 우리의 진로방향을 모색한다는 그러한 대안을 여기서 찾아본다는 이러한 충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본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집행청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서서 솔직하고 우리 충북교육에 있어서의 잘하는 점과 또 잘못된 점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해결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 올립니다.

또 이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시고 합시다마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실제 추진하고 기획하고 관리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알찬 답이 되지 않을까, 또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우리 송대헌 청주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이 출석의 부탁을 올린 것은 어떠한 사안이 초등문제이기 때문에 청주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참여해서서 상당부분 답변하실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본인을 제외한 여섯분 위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보통 앞아계신 순서로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충원 위원님께서 공무상 12시 이후에 일정이 있으셔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충원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좌석 순으로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참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우리 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시간은 동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되도록 본 질문은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제출을 하신 바 있는 질문요지내용 이외의 발언은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도 관참겠습니다만은 되도록 질의서로 대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우리 이충원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의회진행방법이 서툴러서 우선 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을 못했습니다.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09분)

● 의장 조일환

그래서 의사일정 오늘의 제1항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고 이충원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이충원위원님 부탁 올립니다.

(이충원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네가지 분야에서 제가 사전 질의요지를 제출하였고 그 한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충북교육청으로써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5월 초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는 위헌이라는 발표는 우리 교육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교육 방향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충북교육발전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하여 이 지역 보통교육의 총수로서 어떤 점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떤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최근 괴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후 고액과외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초·중등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원, 상급학교 진학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얼마나 되며, 학원등록 학생들 중학교에 적을 둔 재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은 재학생으로서 학원 외의 개인별 과외실태를 파악해 본 통계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의 구체적인 통계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액과외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수, 예·체능계를 포함한 대략적인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우리 도 학생들의 연간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교육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지면보도를 볼 적에는 국가 전체의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총 예산의 17조 내지 20조원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추산해서 우리 도의 학생들이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런 고액과외를 할 때 우리 도의 입장에서 교육감님 얼마를 고액과외라고 보시는지, 그 다음 과외가 불법이라고 한 1999년 1998년, 1997년도 3개년간 과연 얼마나 불법과외 신고를 접수하였고 적발된 수는 얼



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교육적 상황을 살펴볼 때 공교육의 위기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충북교육을 올바르게 잡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교육감님께서 그 바쁘신 가운데도 내 각 지역을 직접 순회하시면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감과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5월 12일 청원교육청 간담회 석상에서 최근에 과외금지 결정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말씀내용을 요약하면 공교육 내실화, 교육재정확보, 소규모 학급 개별화 학습, 교원보수인상, 대입진학 확대, 대학졸업정원제도 도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은 한 지역의 교육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방안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이는 교육부가 항상 주장해온 바이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충북이라는 지역적 입장에서 충북 공교육이 제대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당장 하셔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 이후 본 충청북도교육청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습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중앙 정부의 대책시달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의 자체적인 교육재정 확보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수입에 있어서 국가부담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지원 또는 할당되어 온 교육지원비 외에 기초단체와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서 보조 또는 지원된 금액이 최근 3년간 얼마나 되는지, 최근 교육행정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행정의 경영력입니다.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행정가들의 경영 능력이란 얼마나 국가의 예산을 다른 지방보다 많이 배정 받아 오느냐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능력을 평가받지만 행정의 과학화 배분의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생명으로 생각하게 되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평가는 구시대적 행정 양태로 이제 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행정기관은 물론 다른 기업체 및 민간으로부터의 외부지원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일 전 모 교육감 간담회의 시 교육재정 확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청원교육청 5월 12일입니다.

진실한 의미에서 한 기관에 재정확대란

단순히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에 대한 로비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은 부가적 재원창출 능력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레이기는 하지만 지난 2월 본 위원이 도교육청 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금년도 농협과의 금고계약 시 어떤 조건하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간에 농협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또는 지원금이 어느나를 서면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시내 모 고등기관의 경우 구내 농협지점 설치조건으로 학교 발전금을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약 5억 정도인가를 받은 일이 있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에 의하면 관내 4개 기초단체로부터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적 경비로 3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도 각 행정기관은 물론 기업체 및 민간으로부터의 외부 재원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2월 25일자 충청일보 기사중 학교 전산망 구축, 뇌물 커넥션(Connection:결부, 결합) 관행, 시공업체 기부금 10% 강요, 교장 착복도라는 기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난 뒤에 이미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후속의 소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초·중학교 컴퓨터 보급과 전산망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컴퓨터 납품과 전산망 구축 공사 과정에서 학교측과 시공업체 사이에 검은돈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교장들은 공사비의 10%를 요구하거나 관리부서 담당자들이 기부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사수주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사업비의 10%정도를 기부금으로 제공할 것을 강요하거나 일부 교장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사에 따른 마진이 50%가 넘는 청주지역 5,6개 컴퓨터 관련업체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면서 학교측과 학교장들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모 초등학교의 일천만원 규모의 공사를 하였으나 학교장이 돈을 요구받고 직원을 통해 70만원을 건넸다고 하며, 공사 마진이 커 공사비 10%를 학교측에 주어도 큰 부담이 없이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첫째, 이 기사의 진의 또는 사실 여부에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둘째, 사실이었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셋째,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보도기관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언론중재에 제소했다거나 또는 정정보도 요청을 다른 방향으로 했다거나, 또는 사과문을 제출했다거나, 사실 이 기사는 충북교육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교육계가 더욱이 교육자인 교장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반대로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문제가 기사화 될 수 있는가, 무엇인가 근거가 있기 때문이지 등등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은 관행이지 뭐 10%정도는 그래 그 이상도 있는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교육위원 당신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사정당국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닌 기사였다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오보로 교직계 전체를 매도하는데 관리청으로서는 묵묵부답 아니면 방관하고 있으니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번째 질의를 합니다.

2000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과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이 4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와는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이기 때

문에 큰 잡음 없이 조직되었고 다른 지역은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의무적 조직 때문에 대단한 곤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 경우는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부 학교에서는 옥의 티로 잡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학교에서는 운영위원장을 간접적으로 사퇴하도록 행정직을 통하여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전번에 무엇을 할 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당신이 알려져 학교운영이 불이익을 가져올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옥의 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현재 타시·도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에 교육청 직원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무리를 빚고 있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을 도하 각 신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시교육청에서는 무려 교육청 직원 235명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진출시키는 등 정치판을 방불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는 이러한 선거도 없는 데 풍문에 의하면 교육청 직원을 대거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학운구성이 끝난 후 교육청 소속 직원의 참여



여부를 알아 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에 대한 진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교육청 직원으로서 참여자 수는 얼마나 되며 그 명단을 주실 수 없으십니까?

물론, 지도적인 의미에서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본인도 않지만 의도적으로 참여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평교사 학권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하면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진행이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즉, 할 말도 못하고 다시 말하여 옥상 옥이라는 격인 것입니다.

물론, 학부형 중 교육청 직원, 동창 중 교육청 직원의 경우도 학교로서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도적으로 관계없는 직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질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충원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우리 이충원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져 주셨던 사항을 소상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앞은 순서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광수 위원

교육위원 김광수입니다.

'97년 IMF이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교원정년단축으로 우리 교육계는 아직까지도 그 휴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습니다.

졸속한 교육정책으로 작금 우리 교육계는 교원 수급계획에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으며 불확실한 연금제도와 교권 추락 등으로 정년 전 교직을 떠나려는 교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관하여 금년 8월 말 실시 예정인 교원명예퇴직에 관한 사항과 교원수급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금년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교장 110명, 교감 28명, 교사 261명 등 모두 399명이나 신청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청자 수에 비해 확보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자 중 어느 정도가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예산현황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명퇴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였는가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번에 마지막으로 1942년 8월 이전에 출생한 교원들에 한하여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어

이번 명퇴신청자 중 탈락한 사람은 큰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추경에서 재원을 더 확보하여 보다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초등교원의 경우 1942년 9월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 명퇴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지침이 시달되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까지의 명퇴의 기준과 비교할 때 일관성은 유지되는 것인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예퇴직을 신청한 1942년 9월 이후 출생자가 명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나 상급기관의 지침 내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신청 후 탈락한 교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공교육의 질 저하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심각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년 8월 말 교원명예퇴직 후 부족한 교원 수와 교원 부족으로 인한 학생 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리라 예상되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00년도 우리 도 교대출신 취업현황과 2001년도 교대출업대상자 유치 계획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년단축 이후 그 문제점으로 나타난 교원부족사태는 언제쯤 해소될 것이며

교원신장과 사기진작책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조일환

우리 김광수위원님 명퇴에 관한 교육현안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손만재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재위원 발언대로 나옴)

### ● 손만재 위원

교육위원 손만재입니다.

첫 번째로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현황과 통합목장운영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변천과 정부의 농업정책의 부실로 농촌은 노령 인구만으로 겨우 지탱되고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동향을 보아도 설립목적과는 달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나 이도 여의치 못하여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졸업후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에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현실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지도대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70년부터 1999년도 초까지는 농업고등학교 졸업생도 전공과는 상관없이 취업이 용이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

니다.

특히, 현실을 주시할 때 입학 희망 학생 진로의 미확실성, 교육환경의 취약성, 이 취약성에는 실습장의 취약성, 실험실습 기자재의 노후화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1차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농업고등학교 육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말씀 드립니다.

첫째, 목장의 통합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소요예산과 현재까지의 집행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두 번째, 학생 실험실습장 및 숙소와 급식소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통합운영의 규모는 가금, 중·소가축, 대가축을 포함해서 그 규모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말 실습생의 수용계획은 몇 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통합운영을 하였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운영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각 농업고등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축사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은 두 번째, 농업고등학교 경영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계고등학교 일부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수용 계획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농업계 고등학교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희망한다면 이를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세 번째, 특성상 전환이 어렵다면 농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시켜 육성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시설기준령간 농업고등학교의 보유 실험실습기자재에 있어 보고된 기자재의 백분율은 상당히 높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기자재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보완해 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다음 큰 두 번째로 충북지방기농대회에서 교사의 답안지 유출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회에 걸쳐, 수회에 걸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담당교사의 잘못은 인정이 가나 대회 운영의 미숙으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할 시험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 전에 시험을 실시한 도가 있으므로 해서 사전에 내용이 누설됨으로써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교사의 제자 사랑과 실적만을 생각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으나 우리 집행청에서 내려지는 징계는 관대한 선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들떠 있는 교직원나 특히 농업고등학교 실과 교사들의 기능경기대회 준비, 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지도 선생님들 사기

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답안지 유출과 관련이 없는 다른 학교의 대회참가학생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험별 주관 기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답안지 유출 경위 및 관련자 조치사항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 몇가지 질의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만재위원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조일환

실업계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진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하위원 발언대로 나눔)

#### ● 송진하 위원

교육위원 송진하입니다.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세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교육현안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이 교육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각종 메스컴에 따르면 과거에 있다가 사라졌던 전염병이 재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하절기를 맞아 보건위생의 위험이 염려되는 바 이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작년에 우리 도에서도 제1종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과 제2종 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 그리고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전염병과 식중독의 발생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전염성 질환의 경우 역학조사결과 추정된 감염 경로는 어떻게 판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관리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수입 농산물이 범람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도 못 믿는 실정인데 학교급식에는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감독이 철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충북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청주에 한 축산물 센터에서는 지난 '99년 한해 동안에 젓소 690마리와 한우 80여 마리를 도축 판매하면서 이중 서른 여섯 마리는 병든 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도내 모든 축산물의 유통에서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병든 쇠고기가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됐는지의 여부를 감독청은 조사를 했는가 하는 것과 학교급식에는 불량 축산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세 번째는 학교급식에서의 사고는 시중 음식점이나 가정에서와 달리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인 새싹들에게 동시다발로 집단 감염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반식품이 각 시·도의 보건소 보건직에 의해 지도·감독을 받는 것과는 달리 학교급식의 위생점검지도는 교육청에서 맡고 있고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식품검사나 역학조사에 나서는 사후관리만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이 비전문가인 교육공무원이 학교급식의 위생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도내 학교중 지하수만을 사용하는 학교 수와 상수도도 사용하고 지하수도 사용하고 있는 학교 수와 이중 음료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학교 수와 지하수 사용 학교의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각급 학교의 수질검사는 연간 몇번 하고 있으며, 몇가지 항목의 검사를 하는가 하는 것과 검사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진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우리 송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주로 위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질문을 해 주

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기수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북교육을 전국 최상위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교육감을 비롯한 1만 5천 교육가족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교사의 부족문제, 교역과외문제, 임시제도의 문제, 정서교육의 문제, 교사의 사기저하문제,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 교감 미배치 문제 등 많은 산적된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문제중 교감 미배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5학급 이하 소규모 초·중등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교육을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보는 것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경시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저번 임시회기에 우리 교육위원들은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제113회-제2차 본회의]

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위원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교육부의 회신공문 문서번호 교원 07000-470 4월 20일자에는 교감 대신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앞으로 초·중등 교육정책 수립에 참고한다는 막연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감의 임무는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감을 미배치 하였을 때 문제점을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교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둘째, 교원들의 승진기회가 줄어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며, 셋째, 교장의 의사결정의 어려움 및 교장과 교사 사이의 의견교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넷째로 교장 대외관계 제약과 상당부분 교감의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업무가 가중되고, 다섯째, 책임한계가 모호한 문제가 있으며, 여섯째, 인사업무의 처리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보직교사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므로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동료교사로부터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교육문제들이 있어 본 위원은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 교감 미배치

에 이를 반대하며,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감 미배치 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보직교사 대신 교감 배치를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둘째, 교감 미배치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셋째, 교감 미배치에 따른 교원 업무과중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5학급 이하 교감 미배치로 인한 교감자격 승진연수에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감승진연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부의장님께서 우리 5학급 미만의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우리 교육현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일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나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학여행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여행의 실시시기, 그리고 행선

지 또 여행기간은 며칠이나 걸리는지 초·중·고등학교별로 알려주시고 각급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한 뒤에 환경보호, 또 생태계 보존, 역사 및 문화재 보호 등 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또 교과 학습과 연계해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동지방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피해가 대단히 큼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은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행지에서 생활지도 및 탈선 방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첫째로 새로운 놀이문화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로 여행지에서 학생들이 지나친 음주, 흡연, 소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지도교사들의 밤늦은 음주문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청주시내 경덕초등학교 수학여행지에서 생긴 인솔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결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네. 시간도 조금 있고 제가 의장으로서 평 위원의 입장으로 제가 평소에 조금 관심있던 사항을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손만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나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가 어떤 물적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자격증을 제자사랑 하나만으로 과연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많이 합격시킬려고, 많이 줄려고 했겠는가, 저는 이런 것이 선생님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쩌면 이 교육사회가 많이 올려라, 실적위주의 이런 상황은 아니었겠느냐, 이래서 이러한 선생님이 이러한 그 교사로서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를 올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이충원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과외가 합법화 되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상컨대 현직 교사가 과외를 할 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기우에 지나지 않겠습니까만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또, 명퇴수당이 42년 이후는 받지 않고 굳이 42년 이후에 뿐이 왜 이번에 이번 9월 달에 나가게 해 달라고 목을 매는가, 이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분들 말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는 명퇴제도가 바뀐다. 그래서 불이익을 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쩌면 이것을 명쾌하게 그 분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그 분들이 교직

에서 그야말로 교육에 전념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대생의 4분의 1 정도 4분의 1정도 본도에 취업을 한다. 뭐 그 학생들이 전적으로 다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부족한 현황에 이 학생들의 거주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충복을 기피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며, 적어도 우리 기업에서는 사람을 스카웃 해 오기 위해서 그 회사의 경영내용이나 스크린이나 이러한 제시물을 작성을 해서 가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교대생이 한사람이라도 좀더 우리 '교육청에서 좀 근무를 해라고' 하도록 노력한 것이 안보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에서 안온다고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오도록 만드는 어떤 유인가를 주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그 다음 기간제 교사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명퇴를 하고 그 학교에서 그 반을 담임하는 이러한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가 생각할 때 또는 그 교사가 과연 내가 현직에 있었을 때와 명퇴를 한 다음에 100만원의 보수를 받고 교육에 임했을 때에 그 교육의 질은 가히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다. 또 어느 학부모는 우리 반 선생님은 연세가 60이

넘었는데 교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어, 컴퓨터도 모르고 교육과정도 모르고 관리를 합니다. 참 한심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기간제 교사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간제 교사를 어떻게든 간에 충실하게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여쭙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이상일위원님께서 대단히 어려운, 표현도 부적절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학여행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재론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도에서 권 모 교감이 초등학교 성희롱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 교직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수학여행 현장에서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집행청이든 청주교육청이든 현장에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가 현장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모 해외연수 건이 있을 때 신문사에서 해외까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한테 "왜 그러냐", 선생님 말씀 다르고 학부모 말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언론사는 뭐예요. 분명히 정확한 정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해외까지 가서 현장확인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오신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근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현지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아침에까지 작취미상이 있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을 현장에서 학생들과 분명히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음주 선생님이 수학여행의 학생을 인솔하게 했다는 것,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다. 그래서 왜 이 선생님을 택시를 태우거나 별도로 이 선생님을 격리하지 않고 학생을 인솔하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기수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소규모 학교, 여기는 교육부에서 궁하게 보직교사를 배치할 용의가 있다. 그럼 교감과 보직교사의 차이가 뭐니까, 돈 때문에 그렇다, 돈 때문에. 불행하게도 제가 페루를 방문했는데 페루를, 국민소득이 천불 내외인 그 학교에서도 교육시설만은 실내수영장이 있고 잔디밭 구장이 있고 뭐 우리 교육청에서 한탄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교육실정이 만불의 시대라면서 천불의 교육투자도 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교감이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 교장이 부득이 장기간 병가나 또는 출장이거나 했을 때에 일반교사가 교장 직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교감이 교장을 직대하는 것과 교사 중에 누가 직대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제가 이상 일곱가지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형식보다도 현황 그대로를 우리가

내일 한번 답변을 듣고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위원 발의로 개회를 하고 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항을 질의를 하실 때는 많은 노력과 또 충북교육을 중심으로 걱정하시고 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혹여나 요즘 교원 사기가 저하되었는데 일선 교사들에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보다는 일개 소수의 어떤 건 때문에 전체 교사가 매도된다거나 교육이 매도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충정을 이해해 주셔서 충실하고 좋은 답변과 대안을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집행청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제113회-제2차 본회의]

---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유선규,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本 會 議 會 議 錄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5월 19일(금요일) 10시 04분

議事日程 (제1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여  
 러 위원님들의 행정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  
 변을 일괄 듣고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청의 답변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자리 마이크를 활  
 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5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조일환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님 여러분!  
 만물이 역동하는 희망과 창조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  
 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북교육 발전  
 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 교육위원님께서 주시는 질문과 조언을 참작하여 본도 교육을 더욱 내실화 하고 세계 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인이 어제 이미 계획된 교육감과의 대화 일정 관계로 교육위원 여러분의 질문을 직접 청취하지 못해 관계 국장 및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교육위원님의 건강과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답변에 대한 인사로 같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조일환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여야의 관계가 아닙니다.

즉, 충북교육을 같이 걱정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오늘의 답변을 듣고 여러분들의 좋은 보충질의가 있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청의 직계순에 따라서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입니다.

이충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2월 25일자 언론보도 된 충주시내 학교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 뇌물 및 기부금 강요 사실 여부와 사후 조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보도 당일인 금년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2일간 충주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3명이 관련 학교와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에 학교전산망구축 공사를 한 학교는 충주 남산초등학교 등 17개교이며, 시공업체는 충주시 문화동 소재 엔터컴퓨터 등 6개 업체이고 학교간 계약금액은 500여만원, 그리고 제일 많은 학교가 2,500만원입니다.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시공업자 대표 6명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조사대상 학교 17개 학교에서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업자와 학교에서 모두 보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달리 감사나 조

사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관련 전·현직 학교장 모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향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거나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충원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담당관께서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 해외연수 관계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인 김광수

위원님, 이기수위원님, 이상일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위 세분 위원님들의 질문내용과 관련이 되므로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관련되는 질문 건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예, 감사합니다.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러면 먼저 김광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초등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명예퇴직 신청자 수, 확보된 예산현황, 예산의 범위에서 명퇴 가능 인원, 그리고 금번 명퇴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명예퇴직 신청자는 모두 222명, 중등은 177명, 계 399명이 신청되었고, 명예퇴직 예산으로는 117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이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명퇴 예상 가능 인원은 약 24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명퇴자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생년월일이 '42년 8월 31일 이전인 자, 두 번째로는 원로교사, 세 번째로는 상위직 및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중 65세 적용을 받는 교원은 전원 수용할 것이므로 별다른 반발이라든지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초등교원의 경우 '42년 9월 이후 출생자에게 명퇴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지침을 시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2000년 2학기 본도 교원수급과 명퇴예산을 고려하고 정부의 교원처우개선책 발표와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직 교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 대통령께서 세차례 나온 반발을 근거로 해서 '42년 9월 이후 출생자는 2001년 이후에 명퇴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지침을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 2월에도 '42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수용한 것으로 종전과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명예퇴직에 관련한 규정과 상급기관의 회의시 시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으로는 시·도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와 기획관리국장 회의에서 교원수급 및 예산확보 사정 등을 고려해서 '42년 9월 이후 출생자는 2001학년도 이후에 명예퇴직하도록 설득·유도해서 제한적으로 수용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퇴신청후 탈락되는 교원은 62세 정년을 적용받는 자로서 2001학년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의 공무원 봉급 인상안 발표와 교원처우개선 등으로 사기저하에 따른 공교육의 질 저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 8월 명예퇴직 이후 부족한 교원수, 교원부족으로 수업결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말 명예퇴직 이후 부족한 교원 수는 '42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명퇴를 수용할 경우 150여명이 되는데 이 자리는 기간제 교원으로 충당해서 수업결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원부족사태는 금년이 고비로서 2001학년도에도 교원부족사태가 예상되며, 교사수급은 교육대학교 졸업자가 우리 도에 얼마나 지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2003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교대 졸업생 취업현황과 2001년도 도내 교대생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2000년 졸업생은 총 398명으로 우리 도에 110명, 경기도에 155명, 대전에 60명, 인천 20명 등 임용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도 출신 고교출신자는 모두 우리 도에 임용이 된 것입니다.

또, 교대생 본도 유치를 위한 대책으로 신규채용 시험에 본도 내 교대졸업자는 5점, 도내 고등학교 졸업후 타시·도 졸업

자에게는 3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도 지원응시를 권장하고 교육대학 관계자에게도 우리도에 많은 인원이 지원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이후 명예퇴직제도 변경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년 8월 3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명예퇴직은 2001학년도부터 초등학교원의 수급사항과 확보사정 등을 고려해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명예퇴직을 수용할 것이며, 기간제 교사 질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 임용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장학이라든지 직무연수 등을 통하여 근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교원 기간제 교사는 보수를 상향조정해서 정규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6개월 내지 1년의 장기 임용계약으로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간제 교사 임용시 건강과 인품 등 교직자적 적격자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기간제 교사에게는 가급적 저학년을 배정하고 교단선진화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직무연수를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학

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배치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감 미배치 교에 교감배치를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난 교육감 회의에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복수 교감으로 받은 교감정원을 5학급 이하의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해 놓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교감 미배치로 인한 교원사기저하 및 교원업무과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학급 이하 학교에는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없음에도 우리도에서는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시에 5학급 이하 교감 미배치 교 18개교 모두에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해서 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감승진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5학급 이하 학교의 교감 미배치로 인한 교감자격연수는 교감 미배치 학교의 수만큼 승진 수요가 줄어들 것이어서 승진의 문이 다소는 좁아질 것이며, 앞으로 교감자격연수 계획은 퇴직교원의 수가 확정된 2001학년도 확정된 후에 2001학년도 교감수급계획을 세워야 알 수 있으나 예년보다 연수 인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년 이내에는 교감승진은 극소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감이 없는 소규모 학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보직교사가 교장직무대행이 가능한가, 또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교감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학교의 보직교사가 배치된다고 하면 보직교사가 교장의 명을 받아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상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학여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내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시기, 행선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실시시기는 주로 4,5월에 집중되어 있고, 행선지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경주, 중학교의 경우에는 설악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기간은 초·중학교는 2박3일, 그리고 고등학교는 3박4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시 환경보호나 생태계 보존, 역사나 탐방 등 현장계획과 관련된 연계활동

으로는 수학여행시 여행의 테마를 설정하고 소규모 그룹별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수학여행 중 체험한 사항에 대해서 소감문이나 발표회를 통해서 교과내용과 연계 지도를 하고 있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학교나 학급신문, 교지 등에 게재해서 현장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행지 및 숙소에서 질서유지 및 학생탈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의 사전계획에서 생활지도와 관련한 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인솔지도교사가 음주를 하는 등 학생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 경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금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경주 일원에 대한 수학여행 중 6학년 2반 담임교사가 술에 취해서 25일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여학생들이 잠자고 있는 203호와 5호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기상시키는 과정에서 입을 맞추고 가슴과 등을 만지는 등 추태와 술주정을 부린 그런 사건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치는 발견된 즉시 청주 교육청 감사계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



고, 이 문제의 인솔교사를 직위해제 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신상조치로는 교장은 경고, 교감은 견책, 인솔교사는 해임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본 사안과 관련해서 교원 품위유지를 위한 지도대책을 마련해서 교원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전문직이나 교장, 교감회의와 장학지도 시에도 교원 품위유지와 관련해서 신뢰받는 교직원토를 조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관리자는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사표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할 수 있는 교직원토를 조성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지방문 확인 여부와 인솔교사 격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수학여행 중에는 사고가 인지되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서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사후 조사만으로도 결말지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술에 취한 인솔교사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4월 25일 당일 사고발생 당일 교사가 음주 등으로 피곤하다고 해서 오전에 여관에서 쉬게 하고 교감선생님이 학생들을 직접 인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감선생님이 당해 학급 버스에 계속 승차해서 인솔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먼저 이충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발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대학입시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로 보아서 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인하여 개인과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에 따라 학교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외 허용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방향 전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발표로 인한 충북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과외금지 위헌판결이 충북교육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정적인 영향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은 먼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중심 학습 선호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습학원과 개인 교습의 난립, 현장 교사의 이직, 인터넷 사이트의 과외와 과외 알선 전문업체의 과열경쟁, 대 학생과 대학원 및 학원강사와 일반인들의 개인과외 등장, 그리고 외국인 고용 학원 설립증가로 사교육 공급상의 과열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심리적 불안 및 불만고조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학원과외 금지 위헌판결이 난 후의 고액과외문제에 대하여 첫째,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설학원 수와 학원 등록수강생 중 재학생 수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99년 말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 도내에는 1,828개의 학원이 있으며, 등록수강생 중 재학생 수는 약 9만 2,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학생들이 연간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 시·군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표집해서 그 중에 그 학교의 1개 학급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정자료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9만 3,000원 정도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도내 초·중·고등학생 약 25만명의 37%인 9만 3,000명으로 계산하면 약 86억원이 되고 있

습니다.

그리고 학원 외의 개인별 과외실태는 노출되어 있지도 않고 발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 고액과외라고 할 때 그 액수는 얼마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별로 이런 고액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 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차원에서 고액과외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과외 판결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기타 지역여건상 대도시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고액과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외 허용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활동 방향 전환과 특기·적성 교육활동 방향 전환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우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개인 과외가 허용된다 해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교육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거두었던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관하여는 '99년도 국고로 지원되었던 36억원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지원비가 2000년도에는 전년도의 25% 수준인 9억 3,000만원으로 감액 배분되어 참여 학생 수도 12만 8,000명 중에서 10만

4,000명 정도로 약 20%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도 교육감님들이 강력한 건의를 교육부에서 수용하여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고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특기·적성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고지원과 지방비 지원이 확보된다면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활성화 되어 과외 허용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저소득층, 극빈자, 실직자, 국가보훈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농촌학교 학생들의 수혜 폭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997년부터 '99년까지 불법과외 단속실적에 대하여는 자체단속 결과 '97년에는 단속적발 사례가 없었으며, '98년도에는 교원이 아닌 일반인의 불법과외만 16건의 신고되어 형사고발 2건, 교습소 폐지 여덟 건, 기타처리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일반인 불법과외 한 건만이 신고되어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공교육 위기극복을 위한 충북교육청 단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부차원에서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 중에 있는 바 그 대책이 마련되면 우리 교육청도 그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충원위원님의 과외금지 위헌판결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일환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직 교사의 과외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과외금지 위헌판결에서도 현직 교사와 대학교수의 과외활동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직 교사나 대학교수가 과외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외교원 명단공개와 더불어 파면 등 중징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미 고액과외 예방 단속 계획을 일선학교에 시달한 바도 있고, 지역교육청 별로 현직 교원의 과외와 고액과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 행위로 야기되는 신분상의 변동과 사회적 폐단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직 교사의 과외활동 금지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일환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실업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입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손만재위원님께서 통합목장 운영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의 전망, 두 번째로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영실태 분석, 세 번째로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교사 답안지 유출 관련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통합목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소요예산과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7억 8,000만원으로 현장 교실, 비육돈사, 관리사 등을 신축 및 수리를 할 계획으로 설계를 이미 끝냈고, 5월에 발주를 해서 9월 말까지 준공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실험실습장 및 숙소의 급식소 설치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 실험실습장으로서 현장교실 2실, 교사실 1실, 학생숙소 1실과 관리사 3동을 9월 말까지 신축하고 급식소는 현재 청주농고 기숙사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운영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목장통합이 운영이 된다면 목장용지가 전체 6만 3,765평입니다. 그곳에다가 건축물을 1,298평 신축하고 짓고, 가축은 젖소 50두, 한우 50두, 돼지 600두, 닭 2,000수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실습생의 수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00명으로 목표가 되어 있으며, 23기에 걸쳐서 이미 3월 27일부터 실시해서 12

월 12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통합운영의 기대효과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대효과는 축산교과 실험실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운영에 따른 재정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겠습니다.

통합목장 운영이 초창기이므로 큰 애로사항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농고의 기존 목장 처리계획과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임대완료가 된 학교는 제천농고가 완료되었고, 영동농고가 완료되었으며, 충주농고는 농림부 지침의 구제역 해체에 따라 처분과 동시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농고는 5월 말까지 처분이 되었고 임대를 하며, 보은농고는 2003년까지 존속해서 목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농업계 고등학교 경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업계 고교 일부가 인문계 고교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는 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업학교에서 98%의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상고가 인문계로 전환을 위해서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의결을 지금 보았습니다.

다음에 매괴여상의 6학급중 4학급이 인문계로 2학급은 상업계로 남녀공학 중학교등학교 형태로서 매괴고등학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평상고와 영동상고는 통합형 고교 시범운영을 희망하여 교육부에 5월 1일

날 추천하였는데 교육부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통합형 고교로 전환할 의향입니다.

다음에 농업계 고교가 인문계 고교로 전환을 원할 때에 그 수용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농업계 고등학교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 농고가 전국에 25개교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므로써 교육부에서 더 이상 감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인문계로 전환을 원한다고 해도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에 현재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업계 고교의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육성할 방안은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농림부에서 4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생산시설을 완료한 특수목적교인 보은농·공고를 순수 자영농고로 육성하기 위하여 화공과를 폐쇄하고 시설원예과와 식품가공과로 개편하여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조정하고 전교생에게 수업료 면제, 새마을 장학금 지급, 기숙사 80% 보조 등 자영자양성지원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에 각 농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금년도 농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로 7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주농고에 한국영농학생 경진대회 기자재 구입비가 3억 9,000만원, 농업계 공동실습소 확충비가 5,900만원, 청주농고 외 기자재 확충비 대체비로서 2억 9,600만원이며, 현재 농

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율은 67.2%이나 70% 목표로 연차적으로 대체하겠으며, 첨단 고가의 기자재는 청주농고의 공동실습소에 설치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교사 답안지 유출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안지 유출과 관련이 없는 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질문하셨는데요, 사전에 과제를 알고 경기를 한 자는 기능경기대회 관련규칙 제96조에 의하여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기능장려법 제15조 부정행위자는 입장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 청주농고 재학생 5명은 본인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채점결과 고득점 순으로 입상순위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술위원회를 오는 23일 날 소집하여서 결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상자에 대한 자격취득종목 및 주관기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경진대회 입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증 종목은 기계, 금속 분야에 11종, 전기, 전자 분야에 9종, 건축 분야에 3종, 기타 분야 14종, 총 27개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답안지 유출경위 및 관련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안지 유출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7회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농기계 수리 직종 관리위원인 청주농고 이영복 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제주 관광산업고등학교 좌모 교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4월 21일 저녁 밤 11에 전화를 걸었다가 문제와 정답을 입수해 가지고서 4월 22일 08시에 청주농고 학생들에게 이 답을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직종 필답형 시험이 전국적으로 4월 22일날 9시에 실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주도는 착각을 해 가지고서 4월 21일 오후 2시에 모든 시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저희들보다 하루 먼저 실시가 되어서 그곳으로부터 청주농고에 있는 이 교사가 제주도의 산업고등학교에 있는 좌모 교사로부터 정답이 입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느냐 질문하셨는데요, 청주농고 이영복 교사는 5월 2일 직위해제 하였고, 경찰에서 정답을 알려준 좌모 교사, 이 제주도에 있는 교사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업무방해 혐의로 청주농고 이 교사는 유기에 의한 업무상의 방해혐의로 불구속입건 후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고 현재는 직위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일환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업계 교사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규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영복 교사가 기능경기대회 지도를 통해 매년 좋은 성적을 올려왔습니다.

특히, '99학년도에는 전국대회에 가서 청주농고 학생이 금메달을 따게끔 지도를 한 업적이 많은 교사입니다.

지도교사는 학교의 명예와 학생들의 입상실적을 높이기 위한 의욕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정보를 이 학교 저 학교 얻을려고 노력하다가 제주도의 좌모 교사로부터 정답을 입수하게 되어서 그러한 일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조일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송진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학생들의 전염성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결과와 대책, 그리고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와 2000년도의 전염병 발생 현황은, '99년도에는 제1종 전염병인 세균

성이질 51명, 제2종 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이 218명, 그리고 138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전염병의 발생원인 및 증상을 말씀드리면 세균성 이질은 물 또는 음식을 통하여 감염되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환자 또는 보균자와의 직·간접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 증상은 고열, 복통, 설사이고, 심하면 혈변이 나오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공기에 의하여 감염되며, 주 증상은 귀 및 침샘이 붓고 통증이 심합니다.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위, 장 관계의 질환을 통칭하는 것으로 복통,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감염력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발생하는 경우 개인은 물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성이질이 발생하는 학교중 미원공고는 제주도 수학여행중 숙박업소에서 섭취한 음식물로 인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양분교는? 사회복지 수용시설로서 방문자 접촉, 음식물 교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곡초등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 일부가

현양원 수용시설 위문방문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풍광초등학교는 여름방학중 주민들 사이에 소규모로 전파되다가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간 접촉에 의하여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행성이하선염 불거리는 청주 강서초 외 13개교에서 총 218명이 발생하였고, 주로 환절기에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일부 감염된 환자의 접촉에 의하여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중독이 발생한 보은 삼산초등학교 '99년 10월 1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육상경기대회 응원차 참석한 4,5,6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운반하여 제공한 김밥을 먹은 후 발병하였으며, 역학조사결과 조리과정에서 김밥이 포도상균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넷째,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운사관리 시책으로는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소풍이나 수학여행 시기 또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전염병 예방 및 개인 위생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질병 발생시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립보건원의 전염병 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평소에 방역 활동과 더불어 전염병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시는 비상방역대책반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시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세균성이질 환자 또는 의심자는 즉시 격리하고 치료하고, 유행성이하선염은 등교중지 조치하는 등 전염병의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하수를 음료수로 사용하는 학교 실태와 수질 검사를 강화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학교중 지하수를 음료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총 186개교, 초등학교 132, 중학교 34, 고등학교 18개교, 특수교 2개교로써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교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거쳐 신규굴착 여부를 검토하고 상수도, 간이상수의 인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정수기 시설 및 끓인 물 제공 등으로 안전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3회는 시·군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1회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48개 항목을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에 의심이 가는 경우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중 수입농축산물의 학교급식 제공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축산물의 유통과정상 학교공급 여부 조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리고 시·도 관련부

의 유통과정 집중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7일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농수산물 원산지 식별요령, 축산물 등급에 따른 좋은 고기 구입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 반입시 검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위생지도 점검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의 위생지도 점검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도 및 지역교육청에 보건직 및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급식학교 위생지도 점검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년에도 근래에 계속되는 이상 기후의 영향과 학교급식의 확대실시로 인하여 전염병 및 집단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방역 당국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 소관은 국장님이 출석



하시어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원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사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지원 또는 할당되는 교육지원비 외에 기초자치단체와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서 보조되는 지원금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충청북도에서 법정 전입금 외에 도서관 운영비 4억 2,915만원, 자영농과생 기숙사 식비 1억 2,376만원, 자영농과 양성고 지원비 16억 8,000만원, 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500만원, 문화강좌 실시를 위한 문화학교 사업비 600만원, 문화인프라 종합네트워크 사업비 1,835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농가 자녀학자금 5,836만원, 사립학교시설 수해복구비 1,349만원 등 총 23억 3,411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97년도에 충청북도로부터 사립학교인 양업고등학교 신축비 3억원과 충주 성모학교 신축이전비 3억원을 당해 학교에서 직접 지원받았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 시

설, 교육기자재, 체육시설 및 선수훈련비 등으로 지원 받은 현황은 현금과 시설비 및 물품 등을 합하여 총 29억 1,802만원으로 현금 지원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현황은 농협에서 장학금 3,500만원, 인터넷 지원기금으로 2,00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1,423만원 등 6,923만원과 조흥은행 충북장학회에서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300만원 등 총 7,223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현황은 '97년도에 포항제철에서 진천이월초등학교 농촌시범학교 시설비로 현금 6억 2,000만원과 5억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총 11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충청북도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체 등에서 보다 많은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다각적인 지원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자체 수입재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원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조직과 관련하여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대거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2000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

출시 교육청 직원을 참여토록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당해 학교의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당해 학교의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 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규정에서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청 직원이 적극 참여하고 참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 회의 참석시에 복무출장 처리토록 '98년 공문으로 지시받은 바도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의 확인은 금년 4월 교육부로부터 학운위 제도개선 및 보완을 위한 자료현황 제출 요구가 있어서 보고자료 작성을 위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직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인원은 총 90명으로 운영위원 정수 4,811명 중 1.8%에 해당됩니다.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으로 소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속기관별로는 본청이 33명, 지역교육청 35명, 직속기관 및 학교소속이 22명이며 참가자 명단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둘째, 교육청 직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는 학부모 또는 동창회 임원의 자격으로 많

은 학교에서 참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이 업무폭주 등의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교육청 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불편하다는 내용이 파악된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운영위원의 자체 연수를 담당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관계 없는 직원을 의도적으로 참여시켰다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 소속 직원은 누구나 운영위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운영위원의 선출은 관계법령 및 학교규정에 의한 민주적 대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선출관련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선출관련 관리위원을 선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을 행정직을 통해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고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므로 행정직 공무원의 종용으로 사퇴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이제 우리 집행청으로부터 어저께 위원님

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 시간으로부터 60분이 흘렀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정리하는 시간도 드려야 되겠고 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도 이점 유의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서 저에게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은 의석에 앉아서 의석순대로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집행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답변은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활용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이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래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당초 질문드린 사항이 명퇴에 의한 수급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 중에 명예퇴직희망자가 초등에 222명, 중등에 177명, 계 39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117억 정도로서 240명 정도만이 명퇴가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159명 정도는 명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퇴로 인해서 수급에 문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 답변 중에도 150여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를 임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150여명의 기간제 교사의 선정은 지금 현재 기간제 교사를 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볼 적에는 명퇴를 하고서 또 기간제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자질과 또 능력과 사회적으로 볼 적에 타당한 그런 분들이 기간제 교사로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

램이 듭니다.

모조록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명퇴 희망자를 전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에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정이라도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 교대 출신자가 398명의 교대 출신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충북에 110명, 기타 지역에 나머지는 다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대 출신들이 충북에 고향이라든가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나간 분이 얼마나 되는가, 또 다른 데서 들어온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 의장 조일환

예. 지금 우리 김광수위원님 정리하지 않아도 한정된 예산에서 지금 399명을 못다 수용할 때 또는 더 수용할 때에 부족한 예산에 대한 방법, 그리고 우리 교대 졸업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그 자리에서 해 주시죠.

● 교육감 김영세

예산 관계는 내가 말씀드리죠. 초등교원

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명퇴를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정히 명퇴 해당이 꼭 된다면 나중에 기채라도 해서, 기채라도 해서 명퇴시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명이 수용이 되고 나머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아니고 수급관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가능하면 전원 시키고 그 명예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수용하는 그런 방안은 예산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퇴직한 교원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수용한다고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주교육대학 졸업생이 본도에 얼마만큼 응시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2월 졸업생 청주교대 출신들 중에 본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110명입니다.

110명 전원이 왔고 타시·도 졸업생들 중에 2명이 본도에 지망을 해가지고 실제로 112명이 합격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 김광수 위원

과장님, 명퇴를 하고서 그 기간제 교사를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지난 예로 봐서 명퇴를 해 놓고서 기간제 교사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 학교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채용을 했었잖아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했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할 작정이신가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분들 대부분이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국가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주고, 퇴직수당 주고, 연금 주고, 거기에 다시 또 교단에 서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기간제 교사 보수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 재정으로 봐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광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퇴희망자가 전 보다도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명퇴희망자는 가급적이면 기간제 교사로 임용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엔가 교대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봤어요. 왜 데모를 했느냐, 초등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등교원 자격증 가진 분들을 연수를 시켜서 초등에 발령을 한다라

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데모를 한다고 그 때 그랬었는데 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감 김영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다 종합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명퇴수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기간제 교사를 나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현 실정이 그 사람들 빼놓으면 기간제 교사 충원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대학생들이 데모한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초등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등교원 자격증을 갖다 쓴 도가 많습니다.

강원도하고 전남이 500명씩을 채용했습니다, 중등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서울이 700명인가 800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교육대학의 반발이 심하니까 교육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쓰지 말아라, 이게 교육부의 지금 권장책이에요. 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등교원하고 초등교원은 그 전문성이 다릅니다.

중등교원은 교과위주로 교과담당 위주로 양성이 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고, 초등교원은 인성교육 차원에서 정서교육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등교원의 전문성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나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우리가 타도마냥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몇백명이고 써놓으면 앞으로 청주교대 출신들 취직할 길이 없어 몇 년 간, 적어도 앞으로 3,4년간은 취직 못할 것입니다, 지금 딱 채워 놓으면.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내년까지 2001년까지만 현 실정대로 좀 참아주면 중등교사 자격증 안써도 이게 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곧 기간제 교사제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되도록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초동에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기간제 교사로 유지를 하는 데까지 하고 그러고서 정히 부족하면, 정히 부족하면 그 때 가서는 지금 현재 교과전담교사로 쓴 사람들을 학급담임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교과전담교사를 또 보충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조일환

답변이 됩니까?

● 김광수 위원

예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지금 이 교원 명퇴에 따른 교원 과부족에 대한 여기에 대한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모두 침묵)

제가 그러면 어저께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족한 예산은 기채를 통해서도 수용을 하겠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바쁜 시기가 됐습니다.

기채승인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도의회까지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시기적으로 촉박하기까 제 생각으로는 교육감님께서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 교육감 김영세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인건비 재원이 있으니까 인건비 재원으로 보충을 하고 연말에 가서 재원이 부족한 것을 보태서.....

● 의장 조일환

제 말씀 듣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예산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종 범규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신규교사에 대한 유인책이 좀더 적극적으로 뭐 답변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본도의 졸업생도 타 교육대학에서 수학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대학에 있는 타도이 출신들이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물 또 신출, 새로 채용되는 교사는 의례 벽지로 간다 하는 어떠한 그런 규정을 좀 완화해서라도 좀 우대하는 쪽이라도 어떤 유인책을 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내년도에 우리 교육대학 졸업생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본도에 취업을 희망하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그 다음에 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수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5년이나 10년 묵은 사람이 보

수교육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딱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기간제 교사도 어느 일정기간, 기준이 괜찮은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50대라든지 모든 능력이 일선에 서도 별 지장이 없다면 혹시 교육감님께서 좀 기간을 근무기간을 확실하게 신분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명퇴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어떤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주신다든지 이것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보충질의 순서는 손만재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다만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고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이 67.2%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교해서 이것은 낮습니까, 높습니까?, 그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 말씀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시죠. 고가의 실험실습을 할 때는 청주농고에서 학생들 실험실습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6개 농고의 학생들이 그 고가의 기자재를 실습을 할 때는 전부 청주농고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6개 농고가 거기 와서 그 실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 의장 조일환

저 과장님, 마이크를 활용을 하셔서 속기를 하니까 마이크를 좀 활용하셔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그리고 그 지방의 농고 학생들이 청주농고에 와서 기계실습을 할 때 그 학생들이 당일코스로서 와서 실습을 하는 것인지, 또는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충분한 실습을 하고 가는 것인지, 또 그런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연간 몇 명의 농고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부에서 물론, 목적사업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44억원의 보조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교육부에서? 농업계 고등학교에. 그런데 이것이 1개교에 전부 치중이 되었어요, 그 투자가. 그리고 남은 액수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서 다른 데 5개 농고가 이를 분할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목적사업비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더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이 어저께 질의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환경이 좋지 않아서 농촌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전부 회피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농고 학생들이 농촌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졸업생에 대한 특별지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결국은 특별지도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실험실습 충분히 하는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하려면 특기·적성 교육비를 농업고등학교에 특별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농촌에 들어가서 중견 농업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좀 과장님 깊은 연구를 해서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렇게 몇 개 교에 치중되는 이러한 예산배정이나 또는 학생들의 그 실험실습 이것을 위한 기자재 구입 이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입니다.

첫 번 말씀하신 기자재 현황이 67.2%를 말씀드렸고, 70%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상고에 비해서는 좀 처집니다.

공고와 농고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고는 지금 컴퓨터 쪽으로 1개 기종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농고나 공고는 워낙

기종이 다양하고 가격이 전부 고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서 2003년도까지는 거의 100% 채울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씩이나 입소를 하느냐, 아까 9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주농고가 304명, 충주농고가 204명, 제천이 76명, 보은이 96명, 영동이 68명, 진천이 152명으로서 총 900명입니다.

그것은 2학년 학생이 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올해 2학년, 또 내년에 1학년, 2학년 오기 때문에 이 첨단기자재가 청주농고에 사실은 예산이 편중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실습소가 청주농고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자재가 많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타 학교보다 청주농고가 많이 비중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이 공동목장에 아까 말씀드린 외부 900명이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기자재를 타 학교에서 없는 것을 청주농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주일씩 됩니다, 기간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조일환

예. 손만재위원님께서도 뭐 보충질의도 겸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송진하위원님께서,



뭐 우리 손만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송진하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위생지도 점검은 교육청 자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도·군의 보건직은 위생사 1급 내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보건직은 위생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격증이 없다고 한다면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주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 3월 3일자로 우리 지방지에 사회면에 아주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청주의 한 축산물 센터에서 병든 소 서른여섯 마리를 도축 판매했다. 그런데 단서가 붙었어요. 학교급식에 공급이 됐느냐 하는 것을 수사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런 신문을 보도를 보고 학부모들은 엄청 궁금해 했을 거예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혹시 죽은 소고기를 먹지 않느냐 하

는 생각을 했을텐데 그렇다면 우리 자체에도,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인데 자체로도 죽은 소고기를 우리가 학교급식에 공급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추적을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알아 가지고 공급이 안됐다면 학부모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먹는다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아주 예민한 사항으로서 그때그때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체육과장.....

● 의장 조일환

잠깐, 과장님 뭐 송위원님께서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된다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답변을 간단히 제가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그러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아까 송진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양사로 배치한 사람들이 전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영양사, 학교에. 그래서 그 양반들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합동지도 단속을 우수?했기 때문에 갖고 있고요, 그 소고기 죽은 소 등 저희도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축산물 유통과정이 굉장히 저희들이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경찰에서도 손을 댔다가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업자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전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축산, 농산물?로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에서는 아직 죽은 소가 안들어 온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조일환

송위원님, 뭐 답변이 됐습니까?

● 송진하 위원

예

● 의장 조일환

그럼 우리 다른 위원님 송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모두 침묵)

그럼 다음은 우리 이기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셨는데 한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부분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폐지 문제는 비단 충북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충북으로서도 한계가 있으려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 답변 중에 교사 사기진작책이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교감이 없으므로써 대개 교감이 없는 학교는 그 소규모 학교니까 교사도 뭐 다섯명, 여섯명,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그 교감선생님이 혹시 학생들 인솔을 한다든지 하면 그 수업을 빼고서 교사가 인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고 수업결손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업무도 과다합니다.

또 이제 정년단축에서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또 승진기회가 아까 답변 보니까 그만큼 축소되고 하면 더욱더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기진작책으로써 교과전담교사 배치는 업무상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 교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는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더 연구를 해서 어느 방향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학급 이하, 다음 질문 말입니다.

다.

5학급 이하 해당되는 것이 대도시가 아니고 대개 농촌 학교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면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더욱 더 열악한, 교육문제 때문에 이농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효율화 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은 5학급 이하에 교감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한번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교감이 수당이 20만원이고 보직교사로 있을 경우 5만원이면 그 차이가 15만원이여 갖고 우리 도에 초등이 18명, 중등 16명, 한 34명이어서 한 해 우리 충북의 예산이 6,120만원 정도 절감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거의 8,000억에 가까운 우리 충북예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부분인데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개 농촌학교가 많은 강원도나 다른 시·도와 연계해 가지고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5년간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며 얼마큼 우리가 소규모 학교에서 교감 미배치 하는 학교가 늘어나는지, 이것은 추후에 자료

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일환

오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충질의는 혹시 그 교육부의 건의 관계라든지, 사기진작책,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혹시 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 교육감 김영세

뭐요?

● 의장 조일환

그 소규모 학교의 사기진작 대책,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교감 미배치에 대한 것을 철회해 줄 것을 좀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 교육감 김영세

그 소규모 학교 교감 미배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 회의에서 처음 발족할 때부터 반대했어요. 반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5학급 미만이라 손치더라도 교감을 주고서 그 대신 교감을 수업을 시켜라, 소규모 학교니까. 수업을 들어가면서 교감은 주는 방향으로 여러차례 교육감 회의에서 건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게 애초에 초·중등교육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아직도 묵묵부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해답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두번이 아니에요. 지금 한 서너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이 제도에 대해서 물달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는 5학급 미만의 학교가 약 3분의 1 가까이 돼요. 그 산골에 학교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타도에서도 벌써 문제점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보니까 벽지에 가서 분교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본교는 5학급이 안되는데 분교까지 합하면 10학급이 되는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래 이런 것도 교육부에서는 교감 주지 말라. 교육부에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 도에는 이 분교까지 합쳐서 5학급이 넘으면 지금 도시에 있는 복수교감제도 T/O를 하나씩이라도 빼서 그 쪽으로 돌리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왜인고 하니 분교가 있는 학교는 특히 교감이 필요합니다. 교장이 분교 간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도대체 학교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분교까지 합쳐서 5학급이 넘는데 거기 있는 도시에 복수교감제의 T/O를 빼서라도 그 쪽으로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유지하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네. 다행히 우리 35개 소규모 학교에도 기간제 교사를 보충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모두 침묵)

예. 없으면 우리 이상일위원님 다음 부탁 올립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수련활동이나 여행 시에 인솔교사들의 그 음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시에 이 음주문제를 좀더 자제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폭행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지도교사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일환

우리 이상일위원님도 부탁성에 가까운 의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까?

(모두 침묵)

네, 그러면 답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혹시 이상일위원님께서 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이충원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위원입니다.

제가 안과장님께 조금 여쭙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전산망 구축인데 그 전산망 구축 뇌물 커넥션 관향, 뭐 다행스럽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질의를 할 때에 이것이 우리 충북교육계에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실 분이 없어요. 단, 문제는 이렇게 크게 났거든요, 이게.

(신문보도내용 들어 보이면서 말함)

2월달에 이게 난 것입니다.

그 뒤에 다른 분들은 다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주 퍼져나가고 또 일반 교장선생님도 만나면 자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 본 것이니까 이것을 전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 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또 우리로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알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알아 보신들 제가 보기에 는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충북 교장선생님 한분도.

문제는 충청일보 취재기자를 한번 만나 보셨는지, 충청일보기자, 이것이 충청일보에서 났대요 보니까, 이것을 취재한 기자를 좀 만나보셨는지 좀.....

●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입니다.

취재기자 만나 보았습니다.

● 이충원 위원

만나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그 취재기자 뿐이 아니고 충주에는 그 해당 언론사의 기자가 둘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아니 글썄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거기는 그 기자가 취재를 할 적에는 취재원은 밝히지 않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아니 글썄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언론사에서는 기사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청일보사에게 항의는 했죠?

●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청일보에서 확인을 안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아니, 항의했죠?

사실이 아닌데 왜 이것을 이렇게 냈느냐.

●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그것은 충주교육청에서 해당 주재기자에게 우리 조사결과 학교장도 학교에서도 부인하고 업자 모두가 부인하고 있다. 그 사실을 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교장을 이렇게 매도하고 망신을 시켰는데 뭐 일부분은 충청북도.....

그 후에 아무 그 저희로서는 한번정도 만나보고 그런 정도로 끝나실 것인가, 솔직한 얘기가 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어느 면으로 보면 그 용기를 돋워주어야 할 이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교장을 보호해 주고 교육계를 누가 옹호해 줄 것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뭐 잘못됐다든지 또는 사실이 아니라든지 또는 아직 수사중이라든지 이렇게 낚아야 옳을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아까 여쭙본 것이 그 질의한 것이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이것은 그냥 그래 한번 이렇게 신문에 던져놓고 충북교육계를 이렇게 망신을 시켜놓고, 여기도 뭐 그럴 것이다 그랬네요. 확정적인 전부 언어예요 내가 보니까. 열번도 더 읽어 보았는데. 수사기관에서도 이것을 터치를 안하니까 그 아무 일도 없는 것 아니냐, 또 어떤 면으로 우리가 조사해보아도 아무 일도 없다. 그렇더라고 하면 정정보도를 내든지 사과를 하든지 했어야지 그 뒤에 교육청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했어야만 옳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지금 이충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청에서 산하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을 보호한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이 업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실제 가 조사했을 때는 모든 업자가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의 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했을 적에는 해당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했을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미 제보받은 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갖다가 더욱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도가 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연일 보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하나라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 교육계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면 그대로 덮어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덮어두고 갈 것입니까?

그게 앞으로도 계속.....

저도 언론중재위원 6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은 마땅히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밝혀가지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조금만 내가 두줄만 낚어도 안해요. 이렇게 대문짝 만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장선생님을 70만원을 달래서 사무직원을 통해서 줬다고까지 이렇게 낚는데.....

● 공보감사담당관 안응균

물론, 이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만 한 것 가지고 해당 언론사에 공식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을 적에 그것이 가능하나 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되고.....

● 이충원 위원

왜 불가능한 문제입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 공보감사담당관 안응균

더 다시 말씀드리다면 이 문제는 금품수수에 관한 문제는 공무원의 행정처벌대상은 되지만은 더욱 나가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착수한다고 해도, 물론, 수사의 판단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합니다.

그럴 경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서는 수사가 착수되었을 때에 오히려 선생님들이 처벌을 받을까 봐, 그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안응균

수사의 착수보다도 솔직히 해당 언론사에 서는 이미 보도가 났기 때문에, 또 제보를

받은 사실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연일 보도가 될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아니 글썽 그것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이것은 한번쯤.....

● 교육감 김영세

그것은 내가 답변드리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은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은 주장을 합니다.

내가 청주주재 충청일보 책임자를 불러서 내가 직접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근거가 있어서 보도는 했는데 만일 이것을 더 확대 시키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보고.

그래 확대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장이나 업자들 불러다 조사하면 우리가 수사기관 아닌 이상 조사하니까 없다는 것이예요. 없다고 다 확인서까지 썼고, 앞으로라도 만일 이게 수사상에서 나타날 적에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기자들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거가 있다.

그래서 대략 내 추위로 봤을 때는 어느 업자끼리 물고 들어간 것이예요. 업자끼리 물고 들어간 것인데 이 문제를 확대했을 적에 우리 교육계에 오는 파장은 더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머무른 것이예요. 그냥.

● 이충원 위원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이게  
법법적인 사실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덮어  
두자.....

● 교육감 김영세

그것은 그이상 확대하면 오히려 불리할  
것 같아요.

● 이충원 위원

제가 교육감님 심정도 이해를 하고 우리  
교장님 직접 가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것이 자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문제 같지만 이렇게 크게 내  
니까 교장선생님을 전부 한꺼번에 매도를  
해가지고 의례껏 물품 사면 몇% 먹는 걸로,  
자꾸 이래서 교육계까지 이래서 되느냐, 그  
래서 적어도 이것이 어떻게 명예롭게 마무리  
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교  
육청 입장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  
다.

그렇게 하고 이미 석달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에게도 한번 이런 말씀을 어떤 담당 과  
장님이라도 한번쯤 이런 신문에 났던 문제  
가 오해라든지, 또는 이렇게 진척된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었으면 저희도  
같은 청내에서 제3자가 외부에서 얘기했을  
때 방어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  
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이상 제 말씀을, 그 다음 두 번  
째.....

● 의장 조일환

아, 예. 또 있습니까?

● 이충원 위원

예. 너무 시간이 길죠?

● 의장 조일환

아니, 괜찮습니다.

● 이충원 위원

두 번째,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기획관리  
과 국장님 한 것 중에 뭐니까 학교운영위원  
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의견이 상치가 될 수  
도 있고 또 이것을 제가 어떤 무슨 여기에  
잘잘못을 시비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  
렸고, 뭐 시정하실 게 있으면 시정 존 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제 뜻을 알  
아 들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같은 데도 보면 그 많은 데도 말이죠  
235명밖에 참여를 안했어요. 충북 90명이라  
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장단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  
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가 국장님 알아 들  
으셨을 테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 의장 조일환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게 없습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우리 평생교육체



육과장님, 지금 현재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명확한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죠?, 추정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언제까지 추정이나, 이것이 언제까지.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다 추정컨대 교육기관 밖에서 원인이 다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내에서도 원인이 있는가, 식중독 밝혀야 됩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명분이라도 어떠한 학부모라도 학교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그렇게 공감대를 못 얻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식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연 4회 하시죠, 4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의장 조일환

4회이상입니다. 4회이상, 예?

청주시에서도 시민이 먹는 수도물을 월 1회 수질검사를 해서 공개를 해요. 우리 교육기관에 지하수, 간이 상수도, 상수도만 못한 위생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월 2회이상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다른 데 지장이 있더라도, 석달만에 한번하면 석달 전에 지하수가 오염되면 석달동안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도시 학교에 지하수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밥 먹기 전에 손 씻습니다. 지하수에 씻습니다. 이게 위생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진하게 추정이다, 이러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원인을 밝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과 특히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도 행정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 지하수가 80%가 오염됐다는 전국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염될 수도 있는 이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업교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이 농고 선생님이 보도에 의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헛 자격증을 가지고 행정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거기서 이 업무를 몇 년이나 담당했습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실업과장 정호선입니다.

업무 4년째 맡고 있습니다.

● 의장 조일환

4년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부탁드릴 것은 이 선생

님이 제주도에까지 연결이 돼서 거기서 그것을 자료정보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정말 제 자사랑이나, 돈을 받았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떤 실적을 요구했는가,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일선 그 고생하시는 선생님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됐던 그 선생님이 잘못 판단했든,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됐던 불가피한 사실이 있었든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앞으로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물으면 저한테 물어도 제가 죄를 지고 그랬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할 때, 또 우리 초등학교 성희롱 문제,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이 물으니까 별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청주교육장님께서 저한테 갖다주신 자료에 의하면 학부모의 오해입니다. 학부모의 오해. 그럼 이럴 경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법권은 없더라도 그 이상 진실을 파헤쳐서 많은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 신문사에서 학부모는 그렇다고 그러고 집행청은 아니라고 그러고 해서 필리핀까지 현장확인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내의 문제도 이 선생님이 아침 7시까지 작취미상으로 이러한 범죄아닌 반 도덕적인 행위를 했는데 본인들한테 물어가지고 또 앞으로 이 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했다, 어떻게 처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권이 없는 감사권이라도 최대한으로 발휘하셔서 우리 충북교육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데 애써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원 발의로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행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도 모두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충북교육을 걱정하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수시로 자주 이러한 건설적인 이러한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현안문제 등을 포함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우리 집행청 교육감님 이하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송대헌 청주교육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들과 집행청 관계관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들은 그저 단순하게 묻고 답변한 것에 그치지 말고 얼음 위에 놓여 있는 우리 교육을 다함께 염려하는 한편,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끌어 내고 나아

가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들과 집행청이 다함께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폐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이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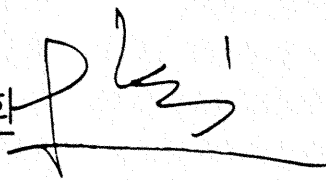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청주교육장 송대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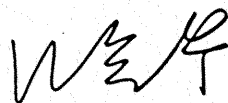
제11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6. .

의 장 조 일 환 

위 원 김 광 수 

위 원 손 만 재 

의사국장 신 춘 우 

# 議 事 日 程

第11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0. 5. 17.~5. 19.(3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5月 17日 (水) (09:30) (10:00)	<input type="checkbox"/> 教育委員協議會 <input type="checkbox"/> 開會式 [第1次 本會議 開議] 1. 第11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會期 : 2000. 5. 17. ~5. 19.(3日間) 2. 忠清北道教育監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第1次 本會議 散會]	
5月 18日 (木) (11:00)	[第2次 本會議 開議] 1. 教育行政에 관한 質問의 件 [第2次 本會議 散會]	
5月 19日 (金) (10:00)	[第3次 本會議 開議] 1. 教育行政에 관한 質問의 件 : 執行廳 答辯 [第3次 本會議 散會] ※ 閉 會	

